

名前:

최근, 인터넷이나 컴퓨터를 사용하는
사람이 늘며 책이나 신문도 컴퓨터를
사용해 읽는 사람이 늘었다. 인터넷으로
신문을 읽으면 우리나라의 일뿐 아니라
세계의 일도 빠르고 쉽게 읽을 수 있
고, 사건도 누구보다 빠르게 알 수 있다.
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 신문을 읽지
않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,
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.
먼저, 아무리 인터넷 기술이 발전했다 해
도 컴퓨터의 크기, 무게를 생각하면 매
일 들고 다니는 것은 불가능하다. 배터리
도 부족할 것이다. 물론 신문 읽기용으로
만 사용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이다.
또한, 인터넷 발전이 대단하여도 그것
은 최근 몇십년간의 발전이기에, 아직
인터넷 사용조차 익숙하지 못한 이들이
있다. 나이가 많은 노인. 배우는 시간이
더 걸린 것이다.
글자를 화면이 아니라, 책이나 종이

위의 글자를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한
일이라고 생각한다. 게임, 일로 컴퓨터의
화면을 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. 눈
과 몸에도 좋지 않을 것이다.
마지막으로, 아직 신문을 읽는 것을
즐거는 사람도 많다. 버스 안, 지하철
안 등에서 신문이나 책을 읽는 사람을
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. 이런 것에 이
사람들은 익숙한 것이다.
신문에 글을 쓰는 사람은 한번 신문
이 나오고 나면 고치는 것이 쉽지 않
기에 몇번이나 확인하고 고쳐 써 쓰는
다. 이것은 인터넷 신문보다 엄격하다고
생각한다.
물론, 예전보다 신문을 읽는 사람은
적어지고 있을 것이다. 하지만, 신문을
좋아하고 글이나 글자를 좋아로 읽는
것을 좋아하는 사람, 이에 익숙한 사람
이 많은 이상 신문은 계속 우리들의
생활 속에서 읽어질 것이다.

1800字